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장성호 수변길’ 관광公

‘이달의 걷기길’로 선정

호수 위 출렁다리 4월 준공예정



‘장성호 수변길’이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6일 ‘장성호 수변길’을 포함한 전국의 8개의 길을 2월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걷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별 대표 관광지를 발굴해 홍보하기 위해 걷기 여행길 민관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달의 걷기길’은 선정하고 있다.

‘장성호 수변길’은 2월 한달간 집중 흥보될 예정이다. 민관 자문위원회들이 직접 취재한 수변길의 다양한 관광 정보들이 2월 한 달 동안 한국관광공사 블로그나 SNS, 민간 웹간체제를 통해 전국에 알려진다.

이번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 길이의 트레킹길로, 장성군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길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2016년부터 장

성호를 따라 조성했다.

수변길의 백미는 호숫가에 조성된 1.23km 길이의 데크길과 자연 지형 그대로의 숲길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뻐르지 않은 걸음으로 2시간40분이면 완주할 수 있는 코스로 동호회원은 물론이고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걷기에도 좋다.

군 관계자는 “숲길과 수변길이 오로막과 내리막으로 이어져 걷는 재미가 좋고, 시원하게 펼쳐진 장성호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걸을 수 있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걷기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관광객들이 장성호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오는 4월 준공을 목표로 장성호 위를 지나는 ‘출렁다리’를 조성하고 있다. 156m 길이의 이 다리를 완공하면 나무데크길과 함께 장성호를 대표하는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름다운 장성호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을 피노리처럼 즐길 수 있는 전국 몇 안 되는 최고의 수변길이다”며 “조만간 걷기를 즐기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반드시 와 봐야할 명소가 될 것으로 자부한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 초·중·고 겨울방학 자원봉사체험학교 성료

청소년에게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기회 제공



청소년
봉사 체
험 학교

교는 자원봉사 기초교육, 다육이 심기 원예체험, 장애인복지관 방문, 문체문화박물관 설화 페이퍼토이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참가 학생들이 직접 만든 다육이 회분을 고흥군장애인복지관에 전달함으로써 나눔과 소통을 통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봉사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회를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겨울하기 봉사 체험 활동을 통해 의미있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누엇보다 청소년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육과 다양한 봉사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2회 830여 명의 학생이 과정을 이수했다.

이번 겨울하기 자원봉사체험학

교는 고흥군지원봉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 학생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학년도 겨울방학 청소년 지원봉사 체험학 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7전남도청 옆)



보성군, 농어촌도로 ‘소교량 가각부 정비사업’ 추진

교량 15개소 2억5천만원 투자…대형농기계·차량 등 원활한 통행으로 민원해소

보성군은 농경지 교량과 제방도로의 연결부를 확장하는 농어촌도로 ‘소교량 가각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예방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행복한 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대형농기계 및 차량은 농경지 주요 구간에 설치된 소규모 교량 통과 시 그자로 회전하여 하천으로 추락하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

이에, 군은 지난해 전수조사를

일제히 마치고 통행이 불편한 28 개소의 교량을 확장이 가능한 15 개의 교량에 대해 군비 2억5천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하고 발생률이 높은 8개소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이달 중순에 완료했고, 나머지 7개소는 1억원의 사업비로 이번 달에 사업을 발주하여 영농기 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좁은 농경지

교량과 제방도로의 연결부 확장으로 대형 농기계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해져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먼저 해결하는 선진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영광군,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영광군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30 일까지 모집한다.

금번 사업은 참여자의 기술 습득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과 민간 취업 연계를 목표로 원예작물 우량묘 생산사업 등 4개 사업장에 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의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군민이며, 다만 생계급여 수급권자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청년층(18세~34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발 점수표 적용을 제외하여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3월부터 6월까지 지정된 사업장에서 1일 6시간, 주 30시간 이내(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

내)로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건강보험증 사본, 실적 및 휴·폐업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350-4612) 및 읍·면사무소 문의하면 된다.

영광=서희관 기자

함평군보건소, 낙상예방 건강교실’ 운영

근력강화 운동·영양교육·웃음치료 등 실시



함평군보건소(소장 박성희)는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2018 낙상 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24일을 시작으로 총 12주 과정으로 운영될 이번 건강교실은 이동진료 겸사과 꿀과 꿀다공증 유소견자 비율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꿀밀도 및 균형 강화를 위한 방법들을 교육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낙상 경험률 감소로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일상용품을 이용한 균력강화 운동, 꿀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낙상두려움 극복을 위한 웃음치료 등 다양한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호남대학교 물리치료학과와 연계하여 장비를 이용한 균형검사, 낙상위험도 검사를 사전·사후에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도 입증할 계획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신안군, 봄철 산불 발생

Zero화총력 추진한다

신안군은 2018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 위해 환경녹지과에 산불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입산통제 구역 28개소와 등산로 10개 구간을 통제하였다.

읍·면별로 선발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56명이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감시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평일 취약시간(15시~17시)과 주말, 공휴일에 탄력적으로 운영·배치하여 산불발생 등 상황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동 진압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안군은 산불예방을 위해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신안군 일대를 순찰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3대를 운영하여 사전에 산불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이장회이나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신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 무상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기(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부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명약사용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전경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민사권리방안 안내